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  
: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한 보 람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  
: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김 정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한 보 람

# 인 준 서

한보람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감사의 글

신입생으로 학교를 오르며 느꼈던 차가운 공기가 아직 코끝에 선명한데 이제 학교를 나서며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에 코끝이 찡해지며 벅찬 감정이 듭니다. 2년의 시간들이 저에게 많은 배움과 위안이 되었고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반가움으로 제자를 맞이해 주시고 따뜻한 가르침을 주신 김정규 교수님.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다채롭고 따뜻한 우리 동기 - 예비엄마 지혜언니, 장난꾸러기 소영언니, 엉뚱하고 진지한 주화, 얼굴도 마음도 예쁜 신영이, 푹푹 찜찜한 막내 서현이와 실없는 농담부터 소소한 일상을 통해 마음을 나눈 자혜언니. 그리고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며 챙겨준 고마운 미란이, 바쁜 와중에 마지막 논문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준 지수, 어설픈 선배 때문에 함께 연구하며 많이 애쓴 진경이, 부족한 저에게 고맙다는 말도 미안할 만큼 마음 써주시는 선언니. 마지막으로 늦은 공부를 시작해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지켜봐 준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저는 또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꾸준히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저의 사람들에게 반짝이는 날들이 함께하길.

2011년 12월 겨울

한보람

## 논문개요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이 경험하는 외상성 사건의 외상후 스트레스(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경찰청에 근무하는 500명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외상성 사건척도(Traumatic Event),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한국판 Beck 우울척도(Korean-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 직무스트레스척도(Job Stress)이며 질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상관분석, 중다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는 PTSD 증상 및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외상성 사건 개수보다 주관적인 충격정도가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경찰공무원, 외상성 사건, PTSD 증상, 우울, 직무스트레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가설 .....	6
II. 이론적 배경 .....	7
1. 외상성 사건 .....	7
1) 외상성 사건의 개념 .....	7
2)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 .....	9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10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개념 .....	10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	12
3)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13
3. 우울 .....	14
1) 우울의 개념 .....	14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	15
4. 직무스트레스 .....	17
1)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	17
2) 직무스트레스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	18
III. 연구 방법 .....	21

1. 연구 대상 .....	21
2. 측정 도구 .....	21
1) 외상성 사건 .....	21
2) 사건충격 척도 .....	22
3) Beck 우울척도 .....	23
4) 직무스트레스 .....	23
3. 자료의 분석 .....	25
<b>IV. 연구결과</b> .....	<b>26</b>
1. 인구통계학적 분석 .....	26
2. 상관분석 .....	28
3. 위계적 회귀분석 .....	29
<b>V. 논의</b> .....	<b>37</b>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1> 사건충격척도의 하위요인 .....	23
<표 2>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	24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	26
<표 4> 변수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	29
<표 5> 외상성 사건의 수와 PTSD 증상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	30
<표 6>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PTSD 증상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	32
<표 7> 외상성 사건의 수와 우울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	34
<표 8>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우울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	36

# 그림 목 차

<그림 1> PTSD 증상에서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 .....	31
<그림 2> PTSD 증상에서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 .....	33
<그림 3> 우울에서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 .....	34
<그림 4> 우울에서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 .....	3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사건이나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사건에서 폭력사태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과 지역사회는 이들로부터의 피해와 충격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가 늘어나고,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역시 증가함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업무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죽음이나 신체의 손상을 경험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접하기 어려운 살인, 강간, 교통사고 등의 비극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2010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9년에 발생한 전체 범죄는 202만209건으로 조사됐다.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590,087건으로 2008년(544,527건)과 비교해 45,560건(8.4%) 늘어났고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살인은 1,374건 발생해 2008년 1,109건에 비해 24% 증가했다. 강도는 6,351건으로 전년(4,811건) 대비 32.0%나 급증했다. 절도는 256,423건으로 2008년(223,216건)보다 15% 늘었다. 강간과 폭력도 전년보다 3% 정도씩 증가했다. 이렇듯 갈수록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살해당하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목격하기도 하고, 범죄인들과 직접 대치하여 싸우다가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을 목격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에 대하여 항상 경계를 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경찰업무는 그 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하고 돌발성과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항상 긴장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이옥정, 2010).

또한 실제로 경찰공무원들이 범인검거, 교통질서 위반 등의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상자 수는 2006년 1,399명, 2007년 1,413명, 2008년 1,44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망자는 2007년 15명, 2008년 17명으로 나타났다(경찰청 홈페이지, 2010년 통계자료).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들의 부상과 순직은 본인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동료들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Thomas-Riddle(1999, 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경찰공무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으로 35.1%가 동료 경찰공무원의 죽음을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사체를 본 것, 죽은 아이를 본 것을 선택했다. DSM-IV(1994)에 의하면 외상성 사건(trauumatic event)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타인의 죽음, 상해,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의 목격 등을 말한다(권석만, 2003). 이런 충격적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 한 후 겪는 스트레스나 정신적 손상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외상성 사건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회상이나 악몽으로 고통을 겪거나, 외상성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들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만성적 긴장, 불면증, 고조된 각성으로 고통을 겪는다.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의 등과 같은 인지적 문제들과 장기간의 심리사회적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우울증을 동반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불면 혹은 피로, 기운저하, 무력감 등의 증상으로 전반적인 생활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가져오기도 한다(박지영, 2004). 외상후 스트레스는 이 외에도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경찰업무의 특성상 경찰공무원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으로 고통 받게 되면, 그들은 소진되어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며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Thomas-Riddle, 1999, 재인용).

경찰공무원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는 연구들이 많다(Anshel et, al., 2000). 경찰이 다루는 업무는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의 최악의 경우’와 관련되어 있다(K. W. Ellison, 1983). 거리의 불량자, 포주, 조직폭력배등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우리 사회의 ‘한계집단’과 부딪혀야 하고,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가정파괴, 존속살인 등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다루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성격상 매우 위험하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위대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경찰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일반적으로 인간의 경험의 범위를 벗어난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들, 외상성 사건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노출되고 깊이 관여하게 되므로 그 누구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박성수, 2002).

아울러 일반행정기관의 업무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경찰공무원의 업무인 범죄사건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경찰업무는 그 자체로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돌발성과 시급성을 띄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재해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위험상황이나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되었던 경찰공무원들은 임상적인 스트레스의 상태에 처하게 되며, 스트레스에 의한 이상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박성수, 2002). Margolis는 직무스트레스를 개인의 심리적·생리적 항상성을 파괴하는 것으로써, 과잉업무,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열악한 작업조건, 개인에게 위협을 주는 직무환경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부정적 결과로 정의하고 있다(이환범, 2006, 재인용).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는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역기능적인 생리적 결과와 불면증, 사기저하, 심리적 무력감, 불안, 집중력 상실 등의 심리적 결과,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등의 행동적

결과의 개인적인 차원과 함께 직무 생산성의 저하와 동기유발의 어려움, 동료 간의 갈등의 조직적인 차원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양승돈, 2004). 또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주며, 특히 정서적 고갈과 비인격화, 낮은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인희, 2009). 경찰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성 사건에 의해서만 결정되기보다 경찰공무원의 개인적·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주목하여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인 결과와 함께 정서적인 소진을 겪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인 외상성 사건을 겪게 되면 개인 내적 항상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외상성 사건을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PTSD 증상과 우울증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공무원 550명을 대상으로 한 황인희(2009)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의 88.4%가 업무 중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 1,045명을 연구한 결과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었던 사람들은 405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하였고(신성원, 2007), 최근의 경찰공무원 280명을 대상으로 이옥정(2010)의 연구에서 64명(22.9%)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집단에, 48명(17.1%)이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분류되어 전체의 40%가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상의 증상을 보였다. 또한 외국의 여러 연구들도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Gershon, Barocas, & Canton, 2009; Gersons, 1989; LeBlanc et al., 2008; Patterson, 2003, 재인용).

해외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Clair, 2006; Green, 2004; Marmar, et al.; Stephens, Long, & Miller, 1997), 업무특성상 경찰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공무원들을 위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많은 경찰 기관들은 ‘위기 상황 스트레스 해소(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CISD)’를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Carlier, Voerman, & Gersons, 2000, 재인용). 이처럼 해외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정책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책적 개입의 부재는 물론,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정도이다(신성원, 2007; 황인희, 2009; 이옥정, 2010).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의 경험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이차적 증상인 우울의 발현,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요인들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업무 특성상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외상성 사건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외상성 사건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및 우울 사이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찰공무원에 있어서 외상성 사건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우울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방적인 개입의 접근 방향의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및 우울의 발생의 완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개인은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효율적인 경찰업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경찰공무원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증가할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경찰공무원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 스트레스가 높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외상성 사건

#### 1) 외상성 사건의 개념

DSM-III-R에서는 외상성 사건(traumatic event)을 일반적 인간 경험의 범위를 넘어선 사건 혹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저하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이하 APA). 그러나 이후 연구결과에 의하면 극심한 스트레스 유발사건이 아니라 다소 심각성이 덜하고 반복적인 사건(예를 들어 교통사고, 폭력피해 등)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졌다(Breslau 등, 1991). 이는 비교적 심각성이 덜한 스트레스 유발사건 역시 외상성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뿐 아니라 외상을 목격하는 것도 외상성 사건이 될 수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을 촉발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최혜경, 2010).

이러한 외상성 사건의 개념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여 DSM-IV(APA, 1994)에서는 외상성 사건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제로 죽음, 죽음의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해나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재정의 되었다. Bell(1995, 재인용)은 외상사건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인지적 판단을 하게 되어 이전의 대처능력과는 상관없이 일상적 대처기술이 마비되어 현저한 심리적 충격과 고통 등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외상성 사건의 경험으로 인해 한 개인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문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

상성 사건을 경험 하더라도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는 않으며, 초기에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대체로 자발적 회복을 하게 된다. 하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심리적 문제를 나타낸다.

Tedeschi와 Calhoun(1995, 재인용)은 외상적 사건이 갖는 6가지 특징을 정리하였다. 첫째,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외상적일 수 있다(McCann & Pearlman, 1990). 즉,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은 재빠른 해결에 도달하기보다는 먼저 충격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둘째,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것이다(Guerra & Slaby, 1989, 재인용). 통제감의 상실은 경험자로 하여금 무력감(a sense of powerlessness)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기 쉽기 때문이다. 셋째,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다(McCann & Pearlman, 1990). 비일상적인 경험은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까지 지지(support) 방법에 대해 고심하도록 한다. 넷째, 사건으로 인한 문제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수록 외상적인 사건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Davidson, Fleming & Baum, 1986, 재인용). 이는 사건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심리적 고통을 가져오고, 그러한 고통은 무망감(a sense of hopelessness)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건의 경험이 비탄을 끌어들이는 점이다. 사건 발생에 대해 가해지는 비탄이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에게 향할 수도 있는데, 타인에게 향할 때 더욱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Downey, Silver & Worthman, 1990). 여섯째, 외상적 사건은 인생주기의 각 시기마다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Tedeschi와 Calhoun(1995, 재인용)은 사건에 대한 최초의 이해와 반응,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의 정도, 사건과 그 결과가 정체성으로 통합되는 정도, 사건의 의미, 적응 잠재 능력과 같은 것은 인생 주기에서 외상을 겪게 되는 시기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 2)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

Carlier & Gersons(1994, 재인용)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을 두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항목은 ‘매우 폭력적인 사건’으로 총격, 인질 사건, 폭동 같은 사건에 직접 참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둘째 항목은 ‘매우 우울한 사건’으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는 사건, 예를 들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고 피해자, 학대 피해자와의 대면 등을 말한다. 즉 첫째는 본인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사건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외상성 사건이고, 둘째는 타인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것을 목격하는 간접적인 외상성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옥정, 2010).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중의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 인용되어 왔고 그러한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신체의 손상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의 일차적 외상 사건과 동시에 자동차 충돌, 사망한 사람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인 외상사건인 이차적 외상사건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다(Carlier, Lamberts, & Gersons, 2000; Patterson, 2000, 재인용).

Blau(1994)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을 “일반적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심리적으로 괴로운 사건”으로 규정하고, Wells, Getman & Blau(1988, 재인용)은 외상성 사건의 4가지 요소를 규정하였다. 첫째, 외상성 사건은 예상치 못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다. 둘째, 외상성 사건은 경찰공무원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이다. 셋째, 외상성 사건은 상실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동료, 본인의 신체적 능력, 또는 본인의 지위 등). 마지막으로 외상성 사건은 경찰공무원의 가치, 믿음 또는 이상에 갑작스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성원(2007)의 연구에서 56.8%의 경찰공무원들이 외상성 사건을 통해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나타났고, 황인희(2009)의 연구에서는 88.4%가 경찰업무 중 외상성 사건을 경험했다고 나타났다.

이렇게 경찰공무원들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는 그들의 고유한 업무 특성상 다양한 위험과 직·간접적인 외상성 사건들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일상에서 수행하는 업무 또한 항상 돌발성과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경고 없이 일상 업무 가운데에서 발생할 수 있다(Clair, 2006, 이옥정, 2010 재인용).

경찰공무원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외상성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과각성, 불안, 인지적인 회피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발현과 연결될 수 있다(Carlier, Lamberts, & Gersons, 1997, 재인용). 경찰공무원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외상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rough, 2004). Pendleton과 Kirsch(1989, 재인용)는 경찰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위험한 사건들로 인해 다른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소진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직무로 인한 외상사건의 반복적 노출은 누적효과를 나타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되기 쉽다(Figley, 1995, 오진환, 2006,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이 경험하는 외상성 사건의 객관적인 수치인 개수와 주관적인 수치인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각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개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극심한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발생하는 장애로 극심한 외상에 노출된 후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고, 사건과 관련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일반적으로 반응이 마비되고, 각성상태가 증가하는 지속적인 증상을 보인다(유지현, 200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DSM-III(APA, 1980, 재인용)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진단명으로 인식되었다. 이전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의 원인을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나, 1970년대와 80년대에 외상 관련 장애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베트남 전쟁의 심리적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으로 스트레스 유발자의 외상적 본질이 우선된다는 경험적 지지를 얻게 되었다(신응섭, 채정민, 1996).

외상후 스트레스의 주요증상은 외상의 재경험, 외상관련 자극 회피 및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 증가된 각성 반응이다. 외상의 재경험이란 외상성 사건을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떠올리는 고통스런 회상(영상이나 생각, 지각을 포함),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괴로운 꿈, 마치 외상성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이나 느낌,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심리적 고통,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의 생리적 반응과 같은 5가지 방식 가운데 1가지(또는 그 이상)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재경험 되어야 한다.

외상관련 자극 회피 및 일반적인 마비는 외상과 관련되는 생각, 느낌, 대화를 피한다, 외상이 회상되는 행동, 장소, 사람들을 피한다, 외상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할 수 없다, 중요한 활동에 흥미나 참여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 미래가 단축된 느낌(예: 직업, 결혼, 자녀, 정상적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중에서 3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증가된 각성 반응은 잠들기 어려움 또는 잠을 계속 자기 어려움, 자극에 과민한 상태 또는 분노의 폭발, 집중의 어려움, 지나친 경계, 악화된 놀람 반응 가운데서 2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각 증상 군별로 증상항목들이 충족되면서, 증상의 지속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내린다.

DSM-IV에서는 진단기준 A의 변화가 특징적이다. 진단 기준 A에서 외상 사건을 개인 자신의 실제적인 위협이나 죽음, 상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뿐 아니라, 타인의 죽음, 상해, 신체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동반하는 경우로 확대되어 외상경험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리적 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도 외상사건 경험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외상에 노출된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고통을 경험하며 사회적, 직업적인 면에서 기능 손상에 대한 기준이 첨가되었다(홍창형, 2005; APA, 1994, 재인용).

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의 병리적인 증상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었고, 베트남 전쟁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현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전쟁과 관련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다른 정신과 질환과의 관련성, 유병률, 정신병리, 인지결함, 사회적 지지의 정도, 외상 경험의 정도와 특성에 따른 병의 심각도 등이 연구되었다. 또한 발병 이전의 선행 요인을 찾으려는 연구들로는 발병이전의 성격 유형, 정신 장애, 생활사건, 대처 양식 등이 연구되었다. 스트레스 원과 관련된 연구로는 전쟁이 아닌 화재, 화산폭발, 비행기 사고, 강간, 교통사고 후에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종단적 연구들이 있었다(은헌정, 이선미, 장광철 등, 1994).

##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PTSD는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약어로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외상 후에 스트레스의 지속기간이 길고 스트레스의 증상이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쓰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외상후 스트레스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의학이나 심리학 분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을 보다 엄격하게 분리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넓은 의미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낮은 단계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포괄하는 측면이 있으나, 좁은 의미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증상의 종류와 지속기간이 특별히 긴 경우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는 외상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증상으로, 넓은 의미로는 외상 후에 나타나는 높고 낮은 정도의 모든 스트레스 증상을 포함하나, 좁은 의미로는 외상 후에 겪게 되는 약한 정도의 스트레스만을 포함한다. 즉 외상후 스트레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정도에 이르지 못한 낮은 단계의 스트레스만을 말한다(배점모,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라는 용어를 외상 후에 겪게 되는 높고 낮은 모든 정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3)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신성원(2007)의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38.8%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약 20%는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회(2009)의 연구에 의하면 12.7%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경찰공무원은 8.5%로 밝혀졌다. 이옥정(2010)의 연구 결과에서는 22.9%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였고, 17.1%가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분류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연구에서 나타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대략 1~14%정도이며, 참전 용사

나 범죄 피해자 같은 위험도가 높은 개인들의 경우는 3~58%이다(APA, 1994).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이옥정, 201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경찰공무원들은 다수의 외상성 사건에 반복적으로 자주 노출됨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경찰공무원은 외상성 자극에 익숙해져서 외상성 사건들로부터 정신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한다(Clair, 2006). 그러나 반대로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로 인해 누적된 영향은 더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Clair, 2006; Stephens & Long, 2000, 재인용), 사건의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Marmar, et al., 2006, 재인용).

또한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인식한 위협에 과잉 반응을 보이거나 명백한 위협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장기 결근, 약물 남용, 스트레스 관련 질병, 문제 행동 등을 보이거나 결국 경찰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McNally & Solomon, 1999, 재인용). Violanti(2003)는 특정 외상성 사건에 노출되는 것은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을 증가시키며, 그것은 결국 알코올 사용과 자살 충동 동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Paton et al., 2009, 재인용).

### 3. 우울(Depression)

#### 1) 우울의 개념

DSM-IV(1994)에서는 우울을 우울한 기분,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현저한 체중감소나 증가, 불면이나 과다수면,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피로감이나 활력상실, 무가치감이나 부적절감, 죄책감,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과 같은 증상들 중 5개 이상의 증상이 최소 2주간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우울증상은 슬픈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장애이며 또한 우울증에는 부정적 자기개념, 의욕상실, 활동수준 저하, 주의집중 곤란 등의 장애가 수반된다(Davison & Neale, 1982). 또한 인지적으로 주의집중의 곤란, 기억력이나 판단력의 저하 등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서 흥미가 감소하고, 슬픔이나 공허함, 죄책감과 같은 정서적 증상과 함께 대인관계의 위축 등을 나타낸다(권석만, 1996). 이러한 우울은 정상인들이 스트레스 사건에 나타내는 가벼운 우울반응에서부터 특수한 의학적 장애로 인한 우울, 정신병적인 우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박경, 2003).

##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우울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더불어 외상 경험자가 흔히 겪는 정신장애로서 이들 집단의 정신 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Hinton et al., 1998; Hinton, Tiet, Tran & Chesney, 1997). 외상을 경험한 이후 개인에게 우울한 증상이 발생할 때 개인은 슬픔과 상실, 유기와 소외에 관한 주제를 보고하였다. 외상후 스트레스 및 슬픔과 우울의 겹치는 부분, 외상후 우울과 높은 자살 경향성 사이의 연결은 우울을 외상을 경험한 개인을 치료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임을 의미한다(Briere & Scott, 2008, 재인용).

우울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과의 관계에 대해 Horowitz 등(1980)은 외상 피해자들이 긴장감, 공포감, 갑작스러운 두려움 등의 불안 증상과 우울한 기분, 심한 절망감, 무기력 및 자기 비하감등의 우울 증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Bryant(1996)와 Goenjian 등(2000)의 연구에서도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Natalie(2007)의 연구 등에 따르면 외상 경험은 성인의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학대 아동 및 성폭력과 같은 외상 경험의 성인에게 있어서도 외상 경험과 우울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2008, 정희진). 다른 외상사건의 사례인 배우자 폭력과 우울간의 관계를 보면,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차보경, 손정남, 2006), 소방공무원 및 지하철 기관사와 같이 대형 사고의 외상 사건에 일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직업군에서도 우울과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이옥정, 2010, 재인용).

Strauman(2002)의 연구 등은 우울을 자기 조절 곤란의 관점에서 보아 우울을 둘러싼 심리학적이고 신경생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우울을 자기, 뇌, 행동의 관점에서 보았다. 조옥자(2005)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는 적어진다고 제시하였으며, 조현주(2007) 등의 연구에서는 어떠한 경험이든지 자신을 비난하는 자기비난,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감정에만 집중하는 과묵화와 같은 부정정서조절 방법이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Coyne, 1976, 재인용)은 우울증상이 다른 사람에게 우울, 적대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원치 않게 되어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되면 그 결과 우울이 더욱 촉진된다고 하였다. 박경(2003)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우울에 대한 부적 생활 스트레스의 설명력을 살펴보았으며, 이 가운데 경험 빈도 면에서 대인관련 생활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것이 우울을 야기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논문을 통해 정신건강에서의 우울은 직업적, 사회적,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생활 전반의 중요한 영역의 장애를 가져오며, 외상 경험은 우울과 연관되어 있으며 외상 경험이 있는 우울의 경우 외상경험이 없는 우울의 경우보다 다른 정신 병리와 더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로 인해

낮아진 심리적 취약성은 무력감, 부적절감, 대인관계에서의 역기능 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부적응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성 사건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더불어 이차적으로 우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4. 직무스트레스

##### 1)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Violanti(1982, 재인용)는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상황의 실패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될 경우에 직업적 요구와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그들의 자신의 능력 사이의 불균형이 인지될 때 그것이 경찰공무원 스트레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경찰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다룬 Schreiber(1985, 재인용)는 ‘장기간에 걸친 스트레스의 효과는 심각한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행동적 문제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조기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Gail(1998, 재인용)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매일매일 인간의 추접한 행위와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 용의자들을 다뤄야 하고 때때로 비우호적인 대중들은 그들에게 해를 입히기도 한다. 잦은 교대근무와 오랜 지루한 업무수행으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은 많지만 국내에서 연구된 결과를 살펴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 시민들의 부정적 이미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위기상황에서의 직무수행 등의 경찰 고유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있었다(이완구, 1994).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수행되며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역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역할 요인은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역할 과다로 나눌 수 있다. 역할 모호성이란 개인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와 직무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 일어나며 역할 갈등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반될 때 즉, 자신이 해야 하는 직무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의 불일치가 생길 때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역할 과다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직무가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적인 조건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시간이 부족하여 업무를 다 끝마칠 수 없거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에 봉착했을 때 일어난다. 대인관계 요인으로는 상사, 동료, 부하와의 관계가 있다. 경찰공무원은 다른 직업 보다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황인희, 2009).

유영현(1997)의 연구결과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수준은 역할문제, 부정적 일상사건, 지역주민관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박성수(2002)는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를 크게 조직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직내적인 요인과 경찰공무원을 둘러싼 외부환경인 조직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 2) 직무스트레스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5년 내의 사망률이 7.5%로 일반공무원의 4.9%에 비해서 거의 두 배에 가깝다는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보면 아직도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Newsweek」 지(1988, 재인용)가 수많은 직업군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의 10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1위는 도시에서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사였으며, 두 번째는 경찰공무원, 세 번째는 공항의 비행기 관제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나 경찰공무원들이 과로와 신경성 긴장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찰공무원들의 불만과 정서적인 동요, 군중 속(시민들)의 고독 현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는 보고(Randall, 1965)에 기초해 보면 경찰이라는 직업이 힘들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경찰업무의 조직내부적요인 중 위험성과 권력적 성격, 고립성, 돌발성 등을 직무특성으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업무적 특수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구조 요청, 위기의 돌발, 언제 위험이 닥치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수시로 겪게 되는 범죄나 재난 사건에서 목격하게 되는 비극적 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박성수, 2002). 즉, 경찰업무가 다른 직업에서는 볼 수 없는 안전에 대한 일연의 잠재적 위험이 내재된 일과 기능들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Brece L. Berg, 2000, 재인용). 경찰업무는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심각한 부상 및 장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단순히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잠재적인 폭력상황과 같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즉,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서적, 심리적 효과에 관한 정보의 제한과 현재의 치안활동에서의 위험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박성수, 2002).

Margolis 등의 연구자(1974)는 직무스트레스를 개인의 심리적·생리적 항상성을 파괴하는 것으로써, 과잉업무,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열악한 작업조건, 개인에게 위협을 주는 직무환경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부정적 결과로 정의하고 있다. Hellriegel과 Slocumm(1986)은 직무스트레스를 환경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개인의 생리적·심리적 반응으로 개념화하고 있다(Patterson, 2003). French, Rogers와 Cobb(1980)은 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환경의 요구와 부적합하고 직무환경이 개인의 요구와 적합하지 못한 상태를 직무스트레스로 정의하고 있다. 한광현(1992)도 직무스트레스를 개인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정도와 직무환경이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 간의 불일치에서 오는 심리적, 육체적 긴장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는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역기능적인 생리적 결과와 불면증, 사기저하, 심리적 무력감, 불안, 집중력 상실 등의 심리적 결과,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등의 행동적 결과의 개인적인 차원과 함께 직무 생산성의 저하와 동기유발의 어려움, 동료 간의 갈등의 조직적인 차원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양승돈, 2004).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은 생리적, 심리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내에서 경찰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경찰공무원의 직무 개선을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이완구, 1995; 김순양·구종태·윤기찬, 2002; 김구, 2005; 이환범·이수창, 2006).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경찰행정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급여체계나 승진구조 등의 정책적 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려는 제안에 국한되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적 연구 접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찰 내부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고통 경감을 위한 개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신성원, 2007; 황인희, 2009; 이옥정, 2010), 경찰공무원의 특수적인 업무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외상사건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우울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및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밝히고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완화 또는 예방하는데 있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의 경기도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외상성 사건 경험 척도

외상성 사건 경험 변수는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충격이란 하위항목으로, 즉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성된다.

외상성 사건을 측정하기 위해, Thomas-Riddle(1999)의 3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직무 사건 목록(List of Work Events)을 신성원(2007)이 번안하고 한국 경찰 실정에 맞게 23 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을 기초로 하여 이을 이옥정(2010)이 한국 경찰 현실에 맞추기 위해 직무 사건 목록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한다. 이옥정(2010)은 Thomas-Riddle(1999) 연구에서 사용된 원래의 직무 사건 목록과 번안된 목록을 재비교하며 원 직무사건 목록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질문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또한 직무사건 목록에서 한국 경찰 현실에 맞도록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 목록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차적 외상성 사건 9문항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성 사건

14문항으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1-10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한다. 신성원(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23개의 사건 중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면서 경험했다고 표시하는 외상성 사건들의 개수를 합하여 외상성 사건 개수를 측정한다. 또한 경험한 외상성 사건들에 대해 각각 기록한 정신적 충격들을 모두 합한 수치를 사용한다.

## 2) 사건 충격 척도 개정판

사건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는 Horowitz(1979)가 외상 경험 후 충격과 적응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서, 외상경험 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침투와 회피의 하위척도를 포함하는 4점 척도의 자기 보고형 검사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Weiss와 Marmar(1996)가 IES에 과각성 척도를 첨가하여 보완한 5점 척도의 IES-R을 이영이(2001)가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형한 IES-R 척도를 사용한다. IES-R은 3가지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투 7문항, 회피 8문항, 과각성 7문항 등 총 22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나타났던 증상의 빈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총 22점에서 88점의 범위를 갖는다.

Weiss와 Marmar(1996)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8로 나타났고, 유지현(2006)의 연구에서 각 소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가 모두 .9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7이었다.

<표 1> 사건충격척도의 하위요인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과각성	4, 10, 15, 18, 19, 21	6
회피	5, 7, 8, 11, 12, 13, 17, 22	8
침습	1, 2, 3, 6, 9, 14, 16, 20	8

### 3) 한국판 Beck 우울척도

한국판 BDI는 Beck(1967)이 개발한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리적 영역을 포함하는 총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BDI는 우울 증상, 신체증상관련요인, 실패 및 자신에 대한 불만관련 요인 그리고 자기비난과 죄책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각 항목마다 우울 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4문장 중 지난 1주일 동안의 피검자의 경험에 적합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0점에서 3점까지 평정되는 4점 척도로, 총점은 0점에서 63점의 범위를 갖는다. 이영호와 송중용(1991)의 연구에서 우울집단 선별을 위한 절단점은 16점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반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78, .75였고, 우울 임상 집단의 경우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5였다.

### 4) 직무스트레스

김정인(1988)이 번안한 Ivancevich와 Matteson(1980)의 스트레스 진단검사(Stress Diagnostic Survey)의 30개 문항 중에서 20문항을 그리고 이종목

과 박한기(1988)의 직무 스트레스 척도에서 조직 및 직무관련 하위 요인의 20개 문항들 중에서 김혜숙(2003)이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비교·분석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총 32 문항으로 직무 스트레스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혜숙(2003)이 재구성한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한다. 원 척도에서는 객관적 스트레스와 주관적 스트레스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므로 주관적인 스트레스만 측정하도록 한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는지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1, 매우 많이 느낀다면 5에 응답토록 하여 주관적인 스트레스의 지표로 삼는다. 따라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관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2개의 문항들을 6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업무	1, 2, 6, 7, 9, 18, 19, 20, 22	9
인사평가	3, 4, 24, 28	4
역할	5, 14, 15, 16, 21, 27	6
부서/대인갈등	8, 10, 11, 12, 17	5
급여/복리후생	25, 26, 29, 30, 31, 32	6
의견반영	13, 23	2

###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18.0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 2)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우울 및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3)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들 중 남성이 439명(87.8%), 여성이 55명(11.0%)으로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30대가 194명(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52명(10.4%)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결혼 상태에서 기혼이 354명(70.8%), 미혼이 140명(2.8%)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졸업이 261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계급을 살펴보면 순경이 147명(29.4%), 경장이 122명(24.4%), 경사가 122명(24.4%)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근무부서는 지구대/파출소가 229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찰청/경찰서 내근에 103명(20.6%)이 해당되었다. 근무 경력은 5년 이하가 16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대체로 건강하다는 응답이 265명(53.0%)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상으로 건강하다는 누적응답이 총 467명(93.4%)으로 대체로 건강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439	87.8
	여	55	11.0
	무응답	6	1.2
연령	20대	94	18.8
	30대	194	38.8

	40대	146	29.2
	50대	52	10.4
	무응답	14	2.8
결혼상태	미혼	140	28.0
	기혼	354	70.8
	이혼	5	1.0
	무응답	1	0.2
학력	고졸	135	27.0
	전문대졸	86	17.2
	4년제 졸	261	52.2
	대학원 졸	16	3.2
	무응답	2	0.4
계급	순경	147	29.4
	경장	122	24.4
	경사	122	24.4
	경위	76	15.2
	경감	19	3.8
	경정의 기타	11	2.2
	무응답	3	0.6
근무부서	과학수사대	70	14.0
	형사/수사	67	13.4
	지구대/파출소	229	45.8
	지방경찰청/경찰서내근	103	20.6
	교통사고조사(외근)	17	3.4
	기타	13	2.6
	무응답	1	0.2
근무기간	5년이하	169	33.8
	6-10년	81	16.2
	11-15년	83	16.6
	16-20년	71	14.2

	21년 이상	92	18.4
	무응답	4	0.8
건강상태	매우 건강	103	20.6
	대체로 건강	265	53.0
	보통	99	19.8
	약간 질병	30	6.0
	심각한 질병	3	0.6

N=500

## 2.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 PTSD 증상(IES-R), 우울(BDI), 직무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외상성 사건의 수와 PTSD 증상( $r=.472$ ,  $p<.01$ )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PTSD 증상( $r=.620$ ,  $p<.01$ )의 관계 역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외상성 사건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외상성 사건의 수와 우울( $r=.336$ ,  $p<.01$ )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우울( $r=.487$ ,  $p<.01$ )의 관계 역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표 4〉 변수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 외상성 사건 수	1				
2.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773**	1			
3. IES-R	.472**	.620**	1		
4. BDI	.336**	.487**	.603**	1	
5. 직무스트레스	.385**	.482**	.555**	.551**	1
평균(M)	11.82	51.15	38.13	7.90	95.89
표준편차 (SD)	5.78	19.04	15.10	9.30	17.99

N=500, \*\*p <.01

### 3. 위계적 회귀분석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외상성 사건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외상성 사건은 외상성 사건의 수와 충격정도의 두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종속변수인 PTSD 증상과 우울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의 유의미한 증가를 살펴봄으로서 조절변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외상성 사건의 수가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PTSD 증상에 대해 1단계에는 외상성 사건의 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는 직무스트레스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두 예측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의 설명량( $R^2$ )은 .223( $p < .001$ )으로 유의하였고, 2단계도 설명량은 .386( $p < .001$ )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설명량 역시 .418( $p < .001$ )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가 PTSD 증상에 대해 각각 유의한 주 효과를 갖으며,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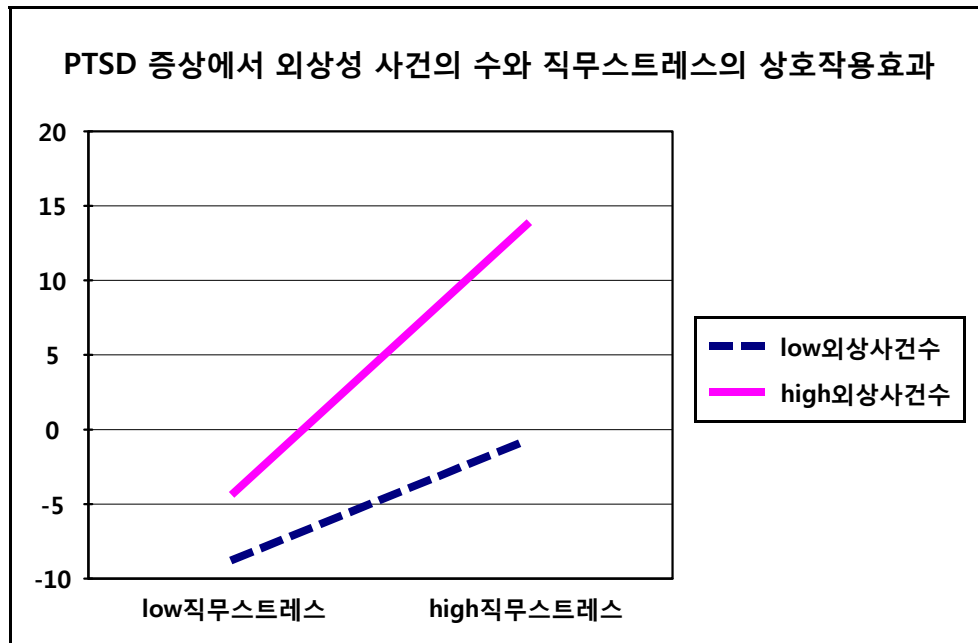
<그림 1>은 PTSD 증상에 대한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Cohen과 Cohen(1983)의 절차에 따라 두 변인의 중심화(centering) 절차를 거쳐  $\pm 1SD$ 를 기준으로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냈다.

<표 5> 외상성 사건의 수와 PTSD 증상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beta$	$R^2$ 변화량	$R^2$	Adj $R^2$	F
1	외상성 사건의 수	.472***	.223***	.223	.221	142.583***
2	직무스트레스	.438***	.163***	.386	.384	156.230***
3	외상성 사건의 수 × 직무스트레스	.179***	.032***	.418	.414	118.677***

N=500, \*\*\* $p < .001$

<그림 1> PTSD 증상에서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 상호작용효과



둘째,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를, 2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두 예측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의 설명량( $R^2$ )은 .384( $p < .001$ )로 유의하였고, 2단계도 설명량은 .470( $p < .001$ )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설명량 역시 .489( $p < .001$ )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 모두 PTSD 증상에 대해 각각 유의한 주 효과를 갖으며,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표 5>와 <표 6>을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의 수의 PTSD 증상에 대한 영향력( $\beta$ )은 .472( $t=11.941, p=.000$ )로 유의하였고, 외상성 사건의 충격

정도의 PTSD 증상에 대한 영향력( $\beta$ )은 .620( $t=17.633$ ,  $p=.000$ )로 유의하였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개수보다 PTSD 증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거쳐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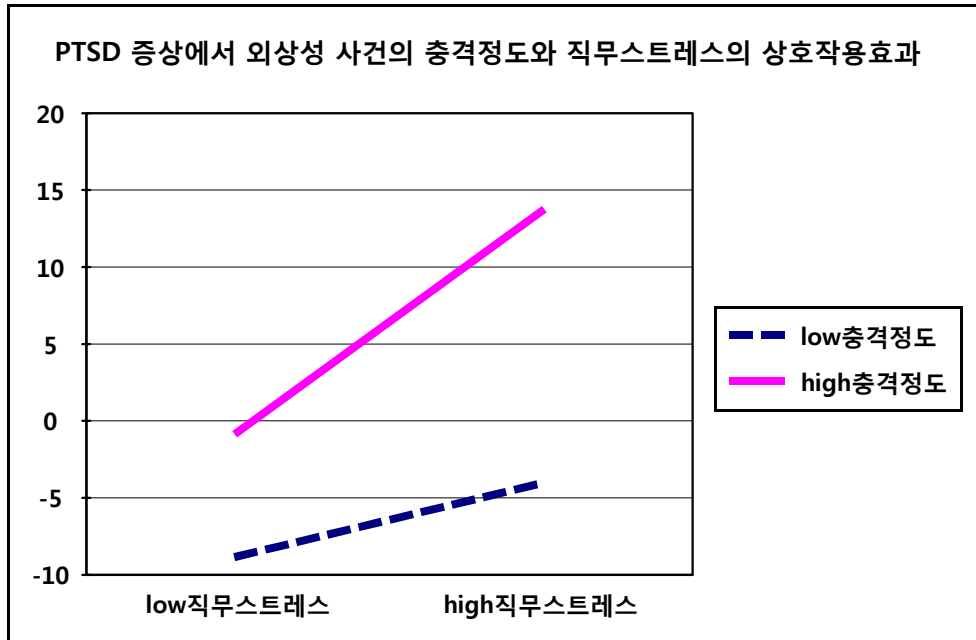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증가할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과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한다.

<표 6>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PTSD 증상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beta$	R <sup>2</sup> 변화량	R <sup>2</sup>	Adj R <sup>2</sup>	F
1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	.620***	.384***	.384	.383	310.916***
2	직무스트레스	.333***	.085***	.470	.468	220.071***
3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 × 직무스트레스	.147***	.020***	.489	.486	158.414***

N=500, \*\*\* $p < .001$

<그림 2> PTSD 증상에서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



셋째, 외상성 사건의 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는 외상성 사건의 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두 예측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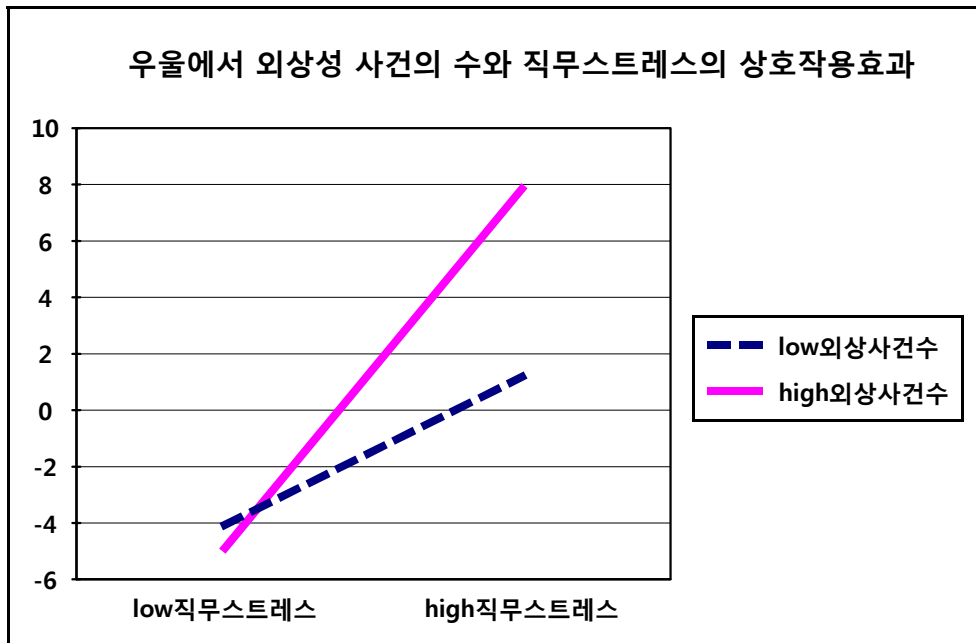
그 결과 1단계의 설명량( $R^2$ )은 .113( $p < .001$ )으로 유의하였고, 2단계도 설명량은 .321( $p < .001$ )로 유의하였다. 3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설명량 역시 .365( $p < .001$ )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대해 각각 유의한 주 효과를 갖으며,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한 것이다. <그림 3>은 우울에 대한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7> 외상성 사건의 수와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beta$	R <sup>2</sup> 변화량	R <sup>2</sup>	Adj R <sup>2</sup>	F
1	외상성 사건의 수	.336***	.113***	.113	.111	63.235***
2	직무스트레스	.495***	.209***	.321	.319	117.716***
3	외상성 사건의 수 × 직무스트레스	.210***	.044***	.365	.361	95.098***

N=500, \*\*\*p<.001

<그림 3> 우울에서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 상호작용효과



넷째,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를, 2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두 예측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의 설명량( $R^2$ )은 .237( $p < .001$ )로 유의하였고, 2단계도 설명량은 .367( $p < .001$ )로 유의하였다. 3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설명량 역시 .418( $p < .001$ )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 모두 우울에 대해 각각 유의한 주 효과를 갖으며,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표 7>과 <표 8>을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의 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beta$ )은 .336( $t = 7.952, p = .000$ )로 유의하였고,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beta$ )은 .487( $t = 12.437, p = .000$ )로 유의하였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개수보다 우울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우울에 대한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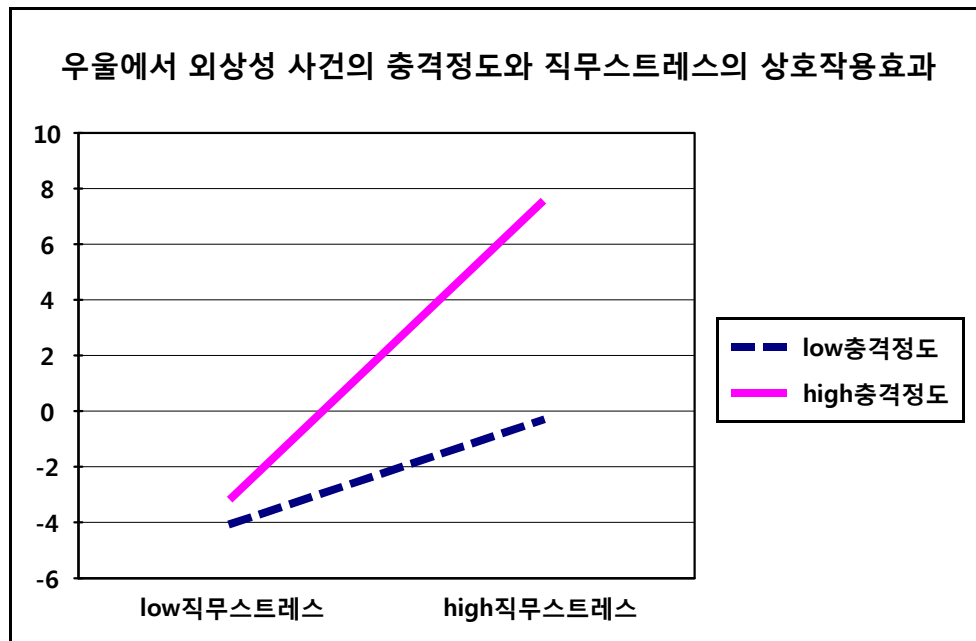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4를 지지한다.

<표 8>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beta$	R <sup>2</sup> 변화량	R <sup>2</sup>	Adj R <sup>2</sup>	F
1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	.487***	.237***	.237	.235	154.681***
2	직무스트레스	.412***	.130***	.367	.365	144.245***
3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 × 직무스트레스	.236***	.051***	.418	.414	118.710***

N=500, \*\*\*p<.001

<그림 4> 우울에서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



## V. 논의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를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성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외상성 사건으로 인한 충격정도가 클수록 PTSD 증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그 충격정도가 클수록 PTSD 증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한다. 이는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로 인해 누적된 영향은 더 심한 PTSD 증상을 가져오며(Clair, 2006; Stephens & Long, 2000, 재인용) 사건의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armar, et al., 2006, 재인용)와 일치한다. 또한 국내의 이옥정(2010)의 연구에서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에 PTSD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인 충격정도가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외상성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증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클수록 우울증상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 충격정도가 클수록 우울증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Natalie(2007)의 외상 경험은 성인의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소방공무원 및 지하철 기관사와 같이 대형 사고의 외상 사건에 일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직업군에서 우울과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의 수보다 충격정도가 PTSD 증상과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격정도가 증상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외상성 사건을 겪은 개인들에게서 PTSD 증상과 우울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외상성 사건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PTSD 증상 및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찰기관들이 PTSD를 예방하기 위해 초기 개입으로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화된 모임인 ‘위기 상황 스트레스 해소(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를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찰 외상 정책(Police Trauma Policy)’은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경찰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정신건강을 위해 외상성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한다면 PTSD 증상 및 우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하위차원 모두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조절효과를 보여,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하위차원 모두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조절효과를 보여 외상성 사건과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는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역기능적인 생리적 결과와 불면증, 사기저하, 심리적 무력감, 불안, 집중력 상실 등의 심리적 결과,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등의 행동적 결과의 개인적인 차원과 함께 직무 생산성의 저하와 동기유발의 어려움, 동료 간의 갈등의 조직적인 차원의 결과도 초래한다(양승돈, 2004). 황인희(2009)의 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주며, 특히 정서적 고갈과 비인격화, 낮은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찰공무원들은 신체적, 심리적 자원이 소진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 외상성 사건을 겪게 되면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자원의 고갈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경찰공무원보다 비교적 PTSD 증상 및 우울을 많이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경험이 PTSD 증상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PTSD 증상 및 우울을 대처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연구결과 확인된 조절변인인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예방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은 경기도 지역에 제한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경찰공무원의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경찰공무원 집단의 전체적인 특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했으므로 연구대상자의 반응 왜곡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김구 (2005).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 p.59-87.
- 김민애 (2003).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2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대처 방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병섭 (1995).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탈진 원인분석. **한국행정학보**, 제 29권 제 2호, p.449-468.
- 김보환 (2001).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비간부 경찰관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1권 제 2호, p.39-69.
- 김성곤 (2002).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의 발굴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양, 구종태, 윤기찬 (2002). 일선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유발요인 분석. **행정논총**, 40(1), p.123-147.
- 김순진, 김환 (2000). 충격적 경험의 후유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상심리학시리즈 7**. 서울: 학지사.
- 김윤정 (2011).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원 (2005). **외근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

- 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금 (2007).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한 (2006). **소방공무원 현장충격 수용실태의 실증적 분석: 성격, 자기통제, 사회적 지원의 통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정식 (1999). **한국경찰공무원 사기영향요인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 경 (2003).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 8, No. 3, 581-593.
- 박성수 (2002).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1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종현 (2005). **경찰공무원과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탈진감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영 (2004). 119구조대원 및 그 가족의 정서적 반응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 17권, p.158-191.
- 방창훈, 홍외현 (2010). **공상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 24권 제 4호, p.79-85.
- 배점모 (2008). **소방대원의 출동충격, 사회적 지지, 대처행태와 PTSD 증상 및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점모 (2011).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 및 우울간의 관계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청구논문.

- 신성원 (2007). **경찰공무원의 일상적, 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용섭, 채정민 (199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통합적 접근: 충격적인 사건에 따른 심리적 문제의 이해**. 서울: 하나의학사.
- 안무옥 (2008). **청소년의 외상경험, 정서조절,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5(2), pp.91-104.
- 양승돈 (2004).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염병수 (2006). **사상사고 경험 철도기관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하린 (2008).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탈진에 관한연구: 경기도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영현 (1998).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완충요인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지현 (2006).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과 정서상태,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예심 (2007).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사건충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은헌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레,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4(3), p.303-310.

이강훈 (2008). **경찰공무원의 탈진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도조 (2004).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사기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상원 (1992). **경찰관의 인성적 요인과 역할의식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상철 (2009).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인 변인, 직무 만족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상현 (2005).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민 (2008). **지하철 근로자의 직군별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증상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옥정 (2010).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완구 (1995). **경찰공무상의 직무상 스트레스문제와 개선방안**.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제 4권 제 1호, p.193-223.

이지영, 유제민, 현명호 (2008). **소방대원의 정서지능, 적극적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2), p.373-389.

이지현 (200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의 성격특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환범, 이수창 (2006).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3(2), p.83-101.

- 전유진 (2010). **경찰공무원의 자기노출, 사회적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주 (2004).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의 관계에서 정서와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희진 (2011). **외상 경험자의 외상 죄책감 특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성아 (2009). **직무수행 중 사상사고를 경험한 지하철 승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혜선 (2008).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현경 (2007). **자서전적 기억의 과일반화 경향과 PTSD, 침습 및 회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명옥 (2009). **외상사건에의 노출과 업무특성, 심리사회적 자원이 공감피로, 소진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경 (2010).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정서적탈진, 신체증상, 사회 및 직업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상암 (2004).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집, p.223.
- 한인영, 이지영, 구승신 (2009). **군 병사들이 복무 중 경험한 외상적 사건과 PTSD 증상, 우울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군사회복지학, 제 2권 제 2호, p.25-51.
- 황인희 (2009).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외상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aron, J. (2000). *Stress and coping in police officers*. *Police Quarterly*, 3, 428-450.
- Adali, E., & Priami, M. (2002). *Burnout among nurses in intensive care units, internal wards and emergency departments in Greek hospitals*.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iatry*, 17, 173-181
- Aldwin, C. M. (2000).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An integrative 58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th rev. ed.). Washington, DC: Author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rev. ed). Washington, DC: Authors.
- Anderson, C. R. (1977). *Locus of control, coping behaviors and performance in a stress sett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446-451.
- Anshel, M. H. (2000). *A conceptual model and implications for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police work*.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 375-400.
-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413-445.
- Bell, J. L. (1995). *Traumatic event debriefing: Service delivery design and the role of social work*. *Social Work* 40, 36-43.
- Brian, E. P., & Barbara, S. H. (2006). *Burnout and Secondary Trauma*

*Among Forensic Interviewers of Abused Childre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3, 216-234

- Brown, J. M., Campbell, E. A. (1990). *Sources of occupational stress in the police.* Work and Stress, 4, 305-318
- Burke, R. J. (1993). *Work-family stress, conflict, coping and burnout in police officers.* Stress Medicine, 9, 171-180.
- Carlier, I. V. E., Lamberts, R. D., & Gersons, B. P. R. (1997).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in police officers: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ease, 185, 498-506.
- Carlier, I. V. E., Lamberts, R. D., & Gersons, B. P. R. (2000). *The dimensionality of trauma: A multidimensional scaling comparison of police officers with and withou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97, 29-39.
- Catherall, D. R. (1999).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The importance for the therapist's professional peer group.* In B. H. Stamm(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Self-care issues for clinicians, researchers, & educators(2nd ed., 80-92). Lutherville, MD: Sidran Press.
- Christine S., & Nigel, L. (1997). *The impact of trauma and social support on PTSD-A study of New Zealand police offic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5, 303-314.
- Cordes, S. L., & Dougherty, T. W. (1993). *A review and an integration of research on job burnou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 621-656.

- Cosgrove, L., Brady M. & Peck, P. (1995). *PTSD and the family: Secondary traumatization. The legacy of vietnam veterans and their families: survivors of war: catalysts for change.* Washington: Ancient Orange Class Assistance program, 38-49.
- Figley, R. (1995). *Compassion fatigue as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An overview.* In C. R Figley(Ed.).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1-20).* Empire, KY: Brunner/Mazel.
- Figley, Charles R. (1999). *Compassion fatigue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the costs of caring.* In B. H. Stamm(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self-care issues for clinicians, researchers, & educators(3-28).* Lutherville, Maryland: Sidran Press.
- Gilbert, K. R. (1998). *Understanding the secondary traumatic stress of spouses.* C. R. Figley(Ed.), *Burnout in families: The systemic costs of caring.* 47-74.
- Hart, P. M., Wearing, A. J., & Headey, B. (1995). *Police stress and well-being: Integrating personality, coping and daily work experience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8, 133-156.
- Ivancevich, J. M., & Matterson, M. T. (1980). *Stress and work: A managerial perspective.* Glenview, IL: Scott Foresman.
- Kobasa, S. C.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1.

- Lazarus, R. S., & Foli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Lee, R. T., & Ashforth, B. E. (1996).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the correlates of the three dimensions of job burnou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 123-133.
- Leiter, M. P. (1993). *Burnout as a developmental process: Consideration of models*. In W. B. Schaufeli, C. Maslach, & T. Marek(Eds.), Professional burn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research(237-250). Washington, DC: Taylor and Francis.
- Maslach, C. (1982). *The burnout syndrome. Burnout the cost of caring*. New York: Prentice Hall, p.3-26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2), 99-113.
- McCann, L., & Pearlman, L. A. (1990).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psychological effects of working with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 102-110.
- Park, & L. G. Calhoun(Eds.)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i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tterson, G. T. (2000). *Demographic factors as predictors of coping strategies among police officers*. Psychological reports, 87, 275-283
- Patterson, G. T. (2003). *Examining the effects of coping and social*

- support on work and life stress among police offic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 215-226.
- Sarason, B. R., Shearin, E. N., Pierce, G. R., & Sarason, I. G. (1987).  
*Interrelations of social support measur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13-832.
- Schaefer, J. A., & Moos, R. H. (1992). *Life crisis and personal growth.*  
In B. N. Carpenter(Ed.), Personal cop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 Schaefer, J. A., & Moos, R. H. (1996). *The context for posttraumatic growth: Life crisis, individual and social resources, and coping.* In R. G. Tedeschi, C. L.
- Spector, P. E., & O'Connell, B. J. (1994). *The contribution of personality traits, negative affectivity, locus of control and Type A to the subsequent reports of job stressors and job strai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7, 1-12.
- Thompson, B. M., Kirk, A., & Brown, D. F. (2005). *Work based support, emotional exhaustion, and spillover of work stress to the family environment: A study of police women.* Stress and Health, 21, 199-207.
- Violanti, J. M. (1992). *Coping strategies among police recruits in a high-stress training environm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 717-729.

## ABSTRACT

The Relation of Traumatic Event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 Depression  
of Police Officer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tress

Bo-Ram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police officer's traumatic event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 depression and moderating effect of job stress. The Traumatic event scal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IES-R), Korean-Beck Depression Inventory(BDI) and Job stress scale were administered to 500 police officers working in Gyeonggi-do. To detect the relation of Police officer's traumatic event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 depression and interaction effects, multiple regression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were run with obtained data.

Results indicated that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 events caused the PTSD symptoms and depression. Especially, subjective amount of shock of traumatic events were stronger predictor than the number of traumatic events in PTSD symptoms and depression. Result also revealed that there was moderating effect of job stress in relation of traumatic event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 depression.

Finally,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police officer, traumatic event, PTSD symptom, Depression, Job stress*

## 부 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외상성 사건 (Traumatic event)
3. 사건충격 척도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4. Beck 우울척도 (Korean-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
5. 직무스트레스 (Job stress)



2. 외상성 사건

II. 다음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입니다.

- (1) 경찰관 재직 중 경험한 사건에 대해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 (2) 경험한 사건에 대해 본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은 어느 정도였는지 1~5 사이의 숫자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경험한 직무관련 사건	(1) 경험한 사건		(2) 겪은 스트레스				
		있 다	없 다	진 려 없 다	별 로 없 었 다	보 통	심 했 다	매 우 심 했 다
1	(타인이 나에게 충기, 흉기 등을 겨누는) 치열한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근무 중 타인에게 충격 및 충기를 겨누었다.			①	②	③	④	⑤
3	근무 중 타인에게 (충기를 제외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근무 중 흉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근무 중 (흉기에 의하지 않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위협(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고속의 차량 추격전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위험한 영장을 집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근무 중 심각한 차량사고 (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한)를 경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사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동료 경찰관이 자살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3	동료가 아닌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4	근무 중 사체 (자살, 변사사건)를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근무 중 살해당한 (타인에 의한 죽음)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6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강간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납치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9	성폭행 당한 어린이를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0	학대받거나 방임된 어린이를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1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2	자연재해 (수해, 산불 등)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3	인재 (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 방화)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IES-R

Ⅲ. 다음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위에서 경험했다고 표시한 여러 사건들 때문에 지난 한달 동안 아래의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해당되는 정도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경험한 증상	없다	드물 게 있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그 때의 일이 생각났고, 그때의 느낌도 되살아났다.	①	②	③	④
2	밤에 잠을 설쳤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일로 인해 그 때 일이 생각났다.	①	②	③	④
4	짜증나고 화가 났다.	①	②	③	④
5	그 일을 생각하거나 기억하게 되면서 흥분되었다.	①	②	③	④
6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일이 생각났다.	①	②	③	④
7	마치 그 일이 없었거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8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피했다.	①	②	③	④
9	갑자기 그 때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①	②	③	④
10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잘 놀랐다.	①	②	③	④
11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12	그 일로 아직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①	②	③	④
13	그 일로 인해 무감각해지는 걸 느꼈다.	①	②	③	④
14	마치 그 당시로 되돌아 간 듯이 느끼고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①	②	③	④
15	그 일이 떠올라서 잠들기가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16	그 일과 관련된 감정이 불쑥 북받쳐올랐다.	①	②	③	④
17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①	②	③	④
18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19	그 일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거나, 호흡장애, 현기증 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신체적으로 반응하였다.	①	②	③	④
20	그 사건에 대해 꿈을 꾸었다.	①	②	③	④
21	내가 매우 조심하며 경계하고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22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①	②	③	④

#### 4. BDI

IV. 다음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은 모두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문장들을 잘 읽어보시고 그 중 **요즘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여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① 나는 슬프지 않다.  
① 나는 슬프다.  
②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③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①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①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②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③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①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① 나는 보통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② 내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실패 투성이인 것 같다.  
③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① 나는 전과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①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②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③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5. ①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①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②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③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6. ①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①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② 나는 벌을 받는 것 같다.  
③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①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①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②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③ 나는 나 자신을 증오했다.
8. 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①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②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③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9. ①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①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②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③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①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① 나는 전보다 많이 운다.  
 ② 나는 요즘 항상 운다.  
 ③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① 나는 요즘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①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② 나는 요즘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③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즘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①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②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③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 ①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①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② 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③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①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① 나는 내 용모에 대해 걱정한다.  
 ② 나는 남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용모를 지니고 있지 않다.  
 ③ 나는 내가 추하고 불쾌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15. ①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②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굉장히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나는 너무 지쳐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16. ①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① 나는 전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② 나는 전보다 한두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③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17. ①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① 나는 전보다 쉽게 피곤해진다.  
②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③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① 내 식욕은 평소와 다른 없다.  
①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②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③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①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① 전보다 몸무게가 2kg 가량 줄었다.  
② 전보다 몸무게가 5kg 가량 줄었다.  
③ 전보다 몸무게가 7kg 가량 줄었다.
20. ①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①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② 나는 건강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③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① 나는 요즈음 성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①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②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③ 나는 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5. 직무스트레스

V. 다음은 경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귀하께서 느끼시는 정도에 따라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혀 아 니 다	아 니 다	중 간 정 도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조직에서는 경력에 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인사적체 때문에 승진기회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조직에서 진급하기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다른 조직으로 옮기는 편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5	윗사람들이 서로 상반된 업무를 지시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항상 나의 책임업무량 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윗사람들이 나의 능력과 기술 이상의 업무실적을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부서는 업무상 타부서와 자주 충돌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항상 할 일은 많은데 일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서 간 업무책임이 중복되어 서로 간에 마찰이 빈번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업무 수행시 타부서와의 책임한계가 분명치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동료 경찰관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며 업무에 협조하려 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업무의 역할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업무가 전체적인 일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판단과는 상반된 업무를 해야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동료 경찰관들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지시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조직에서 내 능력으로 처리하기 힘든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책이나 지침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가치관과는 다른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내 경력에 비해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3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4	업무평가 기준이나 방법이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25	근무 장비 및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복리후생 제도가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경찰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호의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승진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29	현재의 급여 수준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30	현재 급여 수준은 다른 조직에 비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현재 나의 급여는 노력과 능력에 비추어 낮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급여산정 방법이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